

가공식품 생산 농식품기업 성장 돕는다

전주시, 올해 5억 7100만원 투입 맞춤형 지원… 31일까지 농식품기업 역량강화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전주시가 올해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농식품기업의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전주시역 농식품기업과 6차산업 인증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사업비 5억 7100만원을 투입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전주시역 농식품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크게 △농식품 가공업소 시설·장비 인프라 구축지원 △농식품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간편식 가공제품 상품화지원 △농식품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 및 컨설팅 지원의 4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시는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역량강화패키지 지원사업 △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상품화를 포함하여 총 9가지 주요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성장을 돕기로 했다.

특히 시는 개별 사업 공모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기계 장비 구축과 상품 개발, 포장 디자인, 품질 개선, 박람회 참가비 등을 각각 지원하고,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춘 지원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오는 31일까지 전주시에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농식품기업 역량강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희망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중·소 농식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기반 조성 △기업역량강화 전문 컨설팅 △마케팅 및 판로 확대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류를 갖춰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산업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6층)로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ward5421@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3월 말 예정된 농식품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기업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맞춤형 지원사업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역 농식품기업의 홍보 기회 및 장소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맛배기(한옥마을 내 식품홍보관)를 기업 홍보 및 판로 활성화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주시는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 계획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보건소는 시민들의 심리적·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검사실’을 상설 운영한다.

시민 심리적·정서적 건강 지원

전주시보건소, ‘심리검사실’ 상설 운영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시민들의 심리적·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검사실’을 상설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심리검사실 운영 사업은 다양한 심리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성격과 심리 특성 이해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리검사는 △MBTI(성격유형검사) △TIC(기질 및 성격검사) △에니어그램(성격유형검사) 등 자신의 심리적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격검사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센터의 전문 상담사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1 맞춤형 해석 상담도 제공한다.

시는 심리검사를 통해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이나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또는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해 보다 체계적인 심리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심리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리검사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81-8576) 또는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블로그(blog.naver.com/mindhealingcenter)를 통해 가능하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현수막 재활용·친환경 소재 사용 조례 제정

전주시의회 박선전 의원 대표 발의 “탄소중립 실천·환경 보전 이바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마련됐다.

20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박선전 의원(진보, 인후1·2, 금암동·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



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친환경 소재 사용, 재활용을 위한 정의와 실행계획 수립·시행,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박선전 의원은 “현수막은 사용기간이 짧고 대량 폐기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자원순환으로 환경 보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효자3동 지사협, 돌봄취약계층 위한 건강음료 배달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동장 오현순)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명호)는 h한국아쿠르트 효자점(점장 이진섭)과 협약을 맺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독거어르신 및 홀로사는 1인가구 돌봄 취약계층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사업 ‘건강과 안부를 전합니다’를 추진한다.

‘건강과 안부를 전합니다’ 사업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고독사 예방 목적으로 돌봄취약계층 중 홀로 사는 10가구를 선정하여, 주3회 건강음료 배달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주민센터로 신속히 연락해 위급상황에 대처하도록 연결하는 1차 안전망 역할을 한다.

정명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건강음료 배달지원사업은 독거 어르신 등 1인가구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정서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돕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현순 효자3동주민센터장은 “돌봄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건강음료 배달지원사업은 독거 어르신 등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작지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위기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봄철 번식기 대응 길고양이 중성화 집중 추진

전주시가 봄철을 맞아 도심 속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해 동물복지를 구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봄철 길고양이 번식기 대응’ 중성화(TNR)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를 방지하고, 번식기 동안의 울음소리나 차량 손상 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동물이 생명체로 존중받으며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시와 길고양이 보호단체, 전주시역 TNR 지정 동물보호센터 등이 협력하여 시행되며, △권역별 선정 지역 △길고양이 민원 빈발지역 △전주시 59곳의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중성화 대상은 2kg 이상인 길고양이로, 수술 후에는 중성화 개체임을 나타내는 귀 표시 및 예방접종을 시행한 뒤 일정 회복 기간을 거쳐 포획된 장소에 다시 방사된다.

시는 2kg 미만의 새끼 고양이와 임신·포유 중인 개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성화 수술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중성화 사업과 더불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길고양이 개체수가 급증하는 번식기에 맞춰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개체수 유지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호성동 새마을부녀회, 산뜻한 봄맞이 위한 봄꽃 식재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동장 정문구) 새마을부녀회(회장 이현옥)는 20일, 다가오는 봄을 맞아 동 청사 인근 화단에 봄꽃을 식재했다.

이날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산뜻한 봄맞이를 위해 겨우내 자란 주변 잡초들을 제거하고 팬지, 비올라, 크리산세럼 등 봄꽃 400여 본을 심으며 정성스레 꽃동산을 조성하였다.

이현옥 호성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시간을 내어 동참해준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아름답게 꾸민 꽃들을 보며 싱그러움 봄기운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문구 호성동장은 “주민센터를 찾는 분들이 화사한 봄꽃과 함께 활력을 찾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름다



운 호성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호성동 새마을부녀회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갈매 및 반찬 나눔 봉사, 환경 정화 활동 등 매월 주기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차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